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17호 【루계 제2168호】

주체101 (2012). 4 21 토요일 음력 윤3. 1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연설

영용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전략로케트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국의 근로자들과 평양시민여러분!

남녘의 겨레와 해외동포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군력사에 전례없는 오늘의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자의 대축전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올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전투력강화와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인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과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남녘동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외국의 벗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입니다.

총대중시를 혁명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최정예의 혁명강군을 건설하신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선군조선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오늘의 대축전장도 성대히 펼쳐지게 된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지금으로부터 80년전 백두의 수림속에서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장구한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20세기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혁명적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도 더없이 막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왔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자랑찬 투쟁행로에는 강대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대결전도 있었고 부강조국의 만년터전을 다지는 대건설전투도 있었습니다.

그 나날 우리 혁명무력은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제일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항일빨찌산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군대의 절대적인 좌우명이였으며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고귀한 전통으로 되였습니다.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제일먼저 추켜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앞장에서 견결히 수호해온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앞에 쌓아올린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률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례없는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격전과 정규전도 치르고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벌리는 과정에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무력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줄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습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아로새겨온 백승의 력사가 있기에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가 있는것이며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천만년사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는것입니다.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 서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우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결연히 분발해나서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시기입니다.

며칠전에 있은 력사적인 당 제4차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대로 닮은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본태이며 로동당의 붉은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투쟁방식입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전군을 항일의 총폭탄정신이 꽉 들어찬 오늘의 7련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선을 군사정치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령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가 되여야 합니다.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전우로 굳게 뭉치고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단결은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 위력이며 바로 여기에 군력강화의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전군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피와 목숨을 나누는 전우부대가 되여야 합니다.

지휘관과 병사는 다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맏형과 맏누이,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며 병사들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인민군대는 항일빨찌산의 전통을 이어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데서도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뜰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것입니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끌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수호하고 진정한 평화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의 혁명적본성을 잃지 말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업을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할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새 주체100년대에 울려퍼진 태양의 연설

그이의 력사적인 첫 연설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광장을 꽉 메운 군중들의 폭풍같은 박수갈채로 하여 도간도간 중단되군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거행되는 광장주석단에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신것이다.

누구도 이날에 최고령도자의 육성연설을 들을줄 생각지 못했었다. 그만큼 그이의 연설은 세찬 충격과 감동 그 자체였다. 온 광장이 아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숨을 죽이고 그이의 연설 한마디한마디를 온몸으로 경청하였다.

낮으나 저력이 있고 부드러움과 힘이 넘쳐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음성은 어찌보면 60여년전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을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음성같았고 20년전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의 인사를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찌렁찌렁한 음성그대로였다. 우리의 최고령도자는 모습도, 인품도, 음성도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시라고 모두가 감탄하고 매혹의 환호를 터친 영광의 4월 15일이였다.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저물고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펼쳐지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최고령도자께서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 100년사를 감회깊이 총화하시였다.

돌이켜보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끌내는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 망국노의 운명에 처하여야 했던것이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였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우리 조국의 모습은 자주로 당당하고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른 강국의 모습이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에 총대를 쥐고 일떠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을 개척하고 꿋꿋이 걸어 오늘과 같은 최상의 경지에 이른 우리 조국과 민족의 극적인 운명전환은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인것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우리 민족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애국애족위업을 빛나게 개척했고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강하고 흥하는 주체의 나라를 건설했다.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선군애국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와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무적의 정예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인민군열병대오앞에서 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연설을 자자구구 새겨안으며 사람들은 백두산천출명장들을 모시여 선군으로 빛나는 인민군대의 80성상과 더불어 민족의 자랑스러운 100년사가 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연설은 태양조선의 새 100년대의 로정도를 명시한 정치강령, 전체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에 로 힘차게 부르는 시정연설과도 같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로정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이제 남은것은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만복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하시였다. 이것은 선견지명의 예지와 심오한 진리가 담겨진 강성국가건설의 유명한 명제이다.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언명하신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선군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되며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연설에서 사람들은 그이께서 걸어오신 애국헌신의 길을 생각했고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진두에서 이끄시는 령장의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그이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라는 구호로 뜻깊은 연설을 마감하시였다.

그이의 심장에서 울려나온 이 격동적인 구호는 비록 몇글자밖에 안되지만 승리의 100년을 딛고 희망의 새 100년을 열어나가자는 절세의 애국자, 천출위인의 애국의 호소, 락관의 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을 미래에로 폭풍쳐 달리게 하는 거대한 힘의 분출이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 온 겨레를 끌없이 매혹시키며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진정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를 이끌어가실 찬란한 태양이시였다.

본사기자 리 설

못 잊을 그날의 음성

뜻깊은 태양절 100돐행사의 절정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와 온 세계앞에서 첫 연설을 하시는 력사적순간이였다.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듣는 순간 먼저 떠오른것은 67년전 어버이수령님의 조국개선연설이였다.

당시 《평양민보》 1945년 10월 15일부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평양시민중대회를 전하는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기사가 실리였다.

《…인민대망의 지도자,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이 그 름름한 웅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이 되고…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소녀들이 올리는 꽃다발에 싸인 김장군 역시 감격에 넘친 어조로 새 나라 건설에 전 인민이 힘을 합하고 전력을 다하자는 의미의 인사를 보내였다. 말은 간단하나 대중에게 준 감동은 강철같은것이여서 산야가 떠나갈듯한 환호성가운데 〈이 사람과 같이 싸우고 같이 죽으리라〉는 사람들의 결의는 눈에 보일듯 고조되였다. …》

너무도 인자하고 겸허하시며 자신감에 넘치신 최고령도자의 연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20년전 바로 저 주석단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고 사랑의 축복을 보내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도 귀전에 들려오는 듯싶었다.

감격과 환희로 가슴적시며 우러르니 분명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다 합친것같은 모습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을 뵈올 때마다 그 친근한 영상을 다시 뵈옵고싶어 못견딜만큼 강렬한 매혹의 느낌을 받아안군 하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은 그이의 연설을 받아안고 이분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려는 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마디마디가 조국과 겨레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 넘치는 연설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이 말씀의 구절구절이 심장에 흘러들던 그때의 심정은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다. 마치 이 행성을 통채로 받아안은듯 한 세찬 격정의 설레임이였다.

내 조국은 젊고 창창하다.

태양력사의 첫 기슭에서 10대의 나이에 세계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올렸던 우리 민족은 주체조선의 새 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또다시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보았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의 축복을 받아안고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열병대오의 모습은 자기 령도자를 옹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칠 용맹이 펄펄 넘쳐 하늘에 뻗치는 **김일성**민족의 기상 그대로였다.

너무도 젊으시고 너무도 위대하신 태양을 높이 받들어올려 민족의 기쁨과 영광은 지금 하늘에 닿고있다.

그분의 연설에서, 그 인자하신 풍모에서 우리 겨레는 바야흐로 무르녹는 통일조국의 찬란한 봄을 본다.

박 단 희

온 겨레를 통일애국에로 부른 뜻깊은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이 강령적말씀에는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확고한 통일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오랜 세월 한강로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연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일찌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각계층의 조선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거룩하신 모습을 뵈웠다. 또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굳게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킬데 대한 확고한 립장, 일관한 정책을 견지하시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층의 해내외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지금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과 꼭 같으신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태양이심을 누구나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민족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김 연 희

선군의 기치높이 80년

조국과 인민의 자위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행로는 어언 80성상을 헤아린다. 온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쁨속에 조선인민군 창건 80돐을 맞이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건군의 닻을 올리고 반제자주의 총성을 울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80성상 조국의 자유와 독립,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왔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격전과 정규전도 치르고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벌리는 과정에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강군으로 자라났다고 하셨다.

조선인민군은 력사상 처음으로 두 제국주의렬강을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세웠고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철옹성같이 보위했다. 인민군대는 멸적의 총대와 함께 마치와 낫을 들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명장밑에 약졸이 없고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다.

지난 세기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렬악한 조건에서 아시아의 《맹주》로 돌아치며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일제의 100만대군을 격멸한 항일대전의 력사적승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인민군대는 해방후 청소한 정규무력이였지만 희세의 전설적명장을 모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대를 이어 태양복, 장군복을 누리는것은 인민군대의 무상의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다.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여 인민군대는 군건설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대덕산과 351고지, 초도와 오성산,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한 조국의 고지들과 섬초소, 륙해공군부대들과 최전연의 최전방진지와 전호에 이르기까지 수십성상 조국수호의 천만장정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자욱 어려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길에서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계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조국수호전에서 강군의 위력을 떨쳐온 인민군장병들은 나라의 만년재부와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창조와 건설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최고사령관의 결심과 명령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견인불발의 의지와 단숨에의 정신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공장과 발전소 등 기념비적대상건설에서 위훈을 떨치는 위력한 집단이 인민군대이다.

희천발전소,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인민극장을 비롯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는것이다.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은 인민군대의 자랑찬 80년력사를 보여주는 축도였다.

지축을 울리며 열병광장을 노도쳐간 륙해공군장병들의 근엄한 얼굴에서 사람들은 반제자주의 대결전마다에서 련전련승의 개가를 올린 무적강군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열병식장을 누비는 각종 구경의 자행포, 땅크들과 방사포, 해상장갑무력, 로케트를 비롯한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장비한 무쇠철갑대오의 위용에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가진 자위적무장력의 위력을 다시금 페부로 절감했다.

태양절을 계기로 새로 개관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의 전시물들을 통해서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성스러운 행로를 걸어왔고 오늘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손길아래 백두산총대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는 인민군대의 위력과 자위적국방력의 면모를 가슴뿌듯이 체험하고있다. 각종 저격무기로부터 함선, 비행기, 전략로케트에 이르는 무장장비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강위력한 자위적국방공업을 마련하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백두산장군들의 선군령도의 위대성과 절세위인들의 총대유산을 길이 빛내여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선군신념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자주와 정의는 오직 총대로 지켜야 한다는 80년력사의 진리를 억척불변의 철리로 새기는것이다.

장구한 80성상의 세월 희세의 천출위인, 위대한 선군령장들을 모시여 인민군대의 힘은 무진막강하며 이 나라 인민의 백승의 력사가 꿋꿋이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스웨리예, 이딸리아, 로므니아를 비롯한 세계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는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당하게 될것이다. 조선과의 전쟁은 들놀이처럼 되지 않을것이다.》, 《만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제2의 7.27을 맞이할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만하게 나오지만 사회주의조선의 경우에는 〈유일초대국〉의 지위가 통하지 않는다. 선군정치와 혼연일체, 강대한 군사력을 미국은 꺾지 못할것이다.》라고 평했다.

무적강군의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다. 온 나라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자위적무장력으로 만드신 백두산위인들께 최대의 경의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크나큰 신심과 포부에 넘쳐있는것이다.

아울러 건군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리 용 범

김일성주석님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안 향 진

태양의 년륜이 100번째로 새겨지는 뜻깊은 4월에 저(안향진)는 어머니(정일심)를 모시고 어머니조국땅에 다시 왔습니다.

민족최대의 태양절을 경축하여 온갖 꽃이 만발하는 이 봄날에 조국을 방문한 나의 눈앞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던 감격의 날들이 어제일이런듯 떠오릅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에 떠받들려 만수대언덕에 새로 높이 모셔진 어버이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르느라니 한없는 그리움에 눈굽이 쩌릿이 젖어옵니다.

백두산위인들의 남다른 사랑과 배려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온 저는 태양찬가가 높이 울려나오는 평양에서 그분들의 영생을 삼가 기원하며 추억의 붓을 듭니다.

* *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두고 《통일일가》라고 부르고있습니다.

평양에서도, 제가 살고있는 모스크바에서도 조선동포들모두가 우리 일가에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안동수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첫 문화부사단장을 하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을 해방하는데 앞장에 섰으며 남진의 길에서 1950년 7월 6일에 전사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서른살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바치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 정일심은 이전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고문으로 사업하였으며 90고령의 지금도 통일을 위한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고있습니다. 조선의 기념일때마다 진행하는 행사장들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만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부르는 통일어머니로 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2006년에 작고한 오빠 안향산은 국제고통련과 범민련사업을 보았으며 저도 현재 로씨야고통련의 부위원장으로서 국제고통련 리사회 성원으로 되여있으며 불레찐 《통일》의 책임주필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우리 일가가 이역땅에 문패를 걸고 살면서도 대를 이어 하나된 조선을 위해 일해오고있는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버이주석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고 조선사람으로 새롭게 태여나던 뜻깊은 그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1989년 9월 조국방문의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우리 온 가족은 묘향산에서 어버이주석님을 만나뵙게 되였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수십년세월 떨어져살던 자식들을 만나는 친어버이심정으로 우리 일가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준비해온 꽃바구니를 주석님께 삼가 드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웠던 전쟁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동수가족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다달이 생활보조금을 보내주신 주석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자식들이 이역땅에서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자, 교원, 기자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의 풍습대로 가족모두가 큰절을 올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절을 받으신 주석님께서는 고맙다고 답례하시면서 안동수의 아들딸들을 조국에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오히려 수십년세월 이국땅에서 모든 고충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부인이 용하고 고맙게 생각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낯설은 이국땅에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수고를 더 높이 내세워주시는 주석님의 겸허하신 말씀에 어머니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고맙다는 한마디 말만 올렸을뿐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이기만 하였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쏘련에 갈 때마다 안동수유가족을 찾아보려고 하였는데 일이 바쁘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어머니에게 량해를 구하시고는 우리 자식들을 대견스레 바라보시면서 아들이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아버지는 키가 컸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안동수는 우리곁을 떠나면서 나를 믿고 가족들을 나에게 부탁하였다고, 이제는 낯을 익혔으니 앞으로는 조국에 자주 오라고 하시면서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손목시계를 어머니와 오빠, 언니, 저에게 손수 채워주시였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행복하였습니다.

주석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표현할수 없는 특이한 인간적매력과 겸손성, 위인적풍모를 가슴후덥게 느끼였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련 이틀에 걸쳐 우리 가족을 만나주시며 아버지에 대해서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전투때에 류경수는 105땅크사단장이였고 안동수는 문화부사단장이였는데 자신께서는 안동수를 여러번 만나보았다고, 그는 평양학원(당시) 교원을 하다가 후에는 조선인민군신문사 주필로도 있었는데 그를 105땅크사단 문화부사단장으로 자신이 직접 임명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안동수는 인물 잘나고 싸움도 잘했고 글도 잘 썼으며 조국애와 혁명성도 높았다고 정을 담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갈피갈피를 어제런듯 방불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들을 만나실 때마다 자주 회고하시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해방직후 조선에 나왔던 이전 쏘련군 땅크사단장 랴첸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5땅크부대가 갓 조직된 후 아버지와 함께 일하였었습니다. 그가 1948년말 쏘련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달리 발이 컸던 그에게는 해진 신발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47문이나 되는 그의 신발을 얻으려고 온 시내를 훑었으나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쏘련의 기계화사단장이 헌 구두를 신고 집으로 가게 할수 없다고 하시며 구두수리소를 따로 꾸려 구두를 새로 지어주라고 지시를 주시였다고 합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사용하시던 회중시계를 그에게 손수 선물로 주셨답니다. 며칠후 아버지로부터 단번에 두컬레나 되는 새 구두를 받은 랴첸꼬사단장은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며 아버지에게 김일성동지의 은공을 잊지 않겠다고, 그이께 자기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대장으로 승진된 쏘련영웅인 랴첸꼬는 주석님의 접견을 여러차례 받았으며 쏘련이 붕괴된 후 군복을 벗은 후에도 장군님으로부터 85돐생일상을 받는 등 백두산위인들의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아안았습니다.

근 40년전에 떠나간 전사를 두고두고 잊지 않으시며 그에 대한 추억의 편린이나마 유가족에게 자상히 알려주시는 주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여난지 석달만에 아버지와 헤여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익히였고 어머니와 할머니, 동네사람들로부터 《너의 아버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이다. 너는 영웅의 딸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면서 조국에서 돈을 보내온다는것을 알고 그 어디 먼곳엔가 조선이 있으며 아버지가 조선의 앞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하고 생각하군 하였습니다.

주석님이 아니시라면 어찌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아버지를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열혈의 청춘을 바칠 조국이 없어 쏘련군대에 입대하여 쏘도전쟁에 참전하였던 아버지, 조선이 해방된 이후에도 우즈베끼스딴에 있으면서 갈길 몰라하던 아버지를 평양으로 불러주시여 애국의 넋을 심어주시고 민족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주석님이십니다.

그러시고도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세월이 멀리 흘러간 뒤에도 아버지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 자식들이 이런 훌륭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조선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신들이 국적은 쏘련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조선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남편의 피와 뼈가 묻힌 땅이 아닙니까?

갈리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한동안 생각깊이 창밖을 바라보시던 주석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동수가 하다가 채 못한 일을 우리가 마저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시였습니다.

우리는 주석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제부터라도 조국통일운동에 선참으로 나서겠다고 결의다지였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조선사람의 넋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의 이름도 조선식으로 새롭게 지어주시였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나라없는 설음속에 안울라지미르라고 불리우던 아버지이름을 조선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동수》라고 지어주시던 그 사랑으로 이리나, 윅또르, 리빠, 클라라로 부르고있던 우리 가족 매 사람의 이름을 어머니는 자기의 고국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딸들을 위해서 일편단심 살아왔으므로 정일심으로, 오빠는 묘향산에서 만났다는 뜻에서 안향산으로, 언니는 향산향자에 목란이라는 란자를 따서 안향란으로, 막내인 저는 진달래꽃이라는 진자를 따서 안향진으로 그 뜻까지 밝혀주시며 의미깊게 지어주시였습니다.

화창한 이 4월에 조선에 와서 산과들에 아름답게 피여나는 진달래꽃들을 보느라니 진달래의 진한 민족적향취,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먼저 알리는 굳센 지향과 마음, 온 강산을 삽시에 연분홍빛으로 물들이는 타는듯 한 열정을 저의 작은 가슴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석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그립고 그이곁으로 막 달려가고싶습니다.

진달래는 이역의 찬바람속에서도 언제나 저를 포근히 감싸주고 일으켜세워준 사랑하는 내 조국이였고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주석님의 자애로운 품이였습니다.

그 진달래를 마음속에 소중히 품고 저는 주석님탄생 100돐을 맞으며 이렇게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조국을 방문하여 한 일군으로부터 아버지의 묘비가 애국렬사릉에 세워지니 가야 하겠다는 련락을 받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 일군은 가슴뜨거운 사연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남편의 묘가 평양에 있었더라면 조국에 자주 왔을것이였다는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으시고 해당 일군에게 안동수의 가족들이 떠나기 전에 애국렬사릉에 영웅의 비석을 세워줄데 대하여 말씀하셨다는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쌓은 사람들만이 오를수 있는 영생의 언덕에 아버지를 내세워주시는 주석님의 크나큰 사랑에 진정 감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어버이주석님의 사랑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애국애족의 넓은 품에 안아 애국자로 키워주는 광폭의 사랑이며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번 믿어주고 내세워준 사람이라면 그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음날 우리는 새로 세워진 아버지의 묘비앞에서 근 50년만에 처음으로 눈물의 뚝을 마음껏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 고국인 조선의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묘비앞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맹세다졌습니다.

사실 이국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통일의 길을 걷는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이전 쏘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선포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인 우즈베끼스딴,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등에는 우리 조선동포들이 적지 않게 살고있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나라를 찾으려고 독립군에서 싸우다가 형세가 기울어지자 쏘만국경을 넘어 연해주지방으로 갔다가 1930년대 후반기에 중앙아시아지방으로 이주하여 간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도 어렸을 때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우즈베끼스딴으로 왔습니다. 낯설은 타향에서 나라없는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온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선의 분렬로 당하는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도 가슴아파하였습니다. 하기에 1980년대말 조선동포들이 비교적 많이 사는 우즈베끼스딴의 따슈껜뜨에서는 이전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략칭 아쏘크)가 조직되였는데 저도 그 창립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쏘크운동(후에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로 명칭을 바꾸었음)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지금은 로병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전 쏘련이 자본주의로 복귀된 후 우리 동포사회에는 남조선당국이 보낸 사람들의 마수가 뻗치였습니다. 그들의 소행이란 동포들을 분렬, 리간시켜 저들의 편에 끌어당겨 궁극에는 《승공통일》력량을 마련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모녀는 동포사회의 단합으로 조선의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간만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남조선괴뢰들이 또 하나의 동포조직을 모스크바에 내오려 하는데 대해 일격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동양대학에서 열린 모임에서 어머니는 모여온 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다, 그런데 외세에 의해 국토와 피줄이 둘로 동강났다, 우리는 비록 해외에 살지만 분렬된 조선을 하나로 잇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연설하면서 내오려고 하는 조직의 명칭과 그 목적의 부당성을 날날이 까밝혔습니다.

원래 사회정치생활에 별로 참가한적이 없었고 대중앞에서 연설같은것은 더구나 해본적이 없는 어머니가 그렇듯 당당하게 해외동포들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발벗고나설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주석님께서 키워주시고 믿어주시였기때문입니다.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든 조선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신 주석님의 말씀을 인생지침으로 받아안았기에 년로보장자로서 손자들의 뒤나 봐주면서 여생을 살았을 어머니는 물론이고 오빠와 저도 주재국의 과학과 출판계를 떠나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의 전임일군으로 조선통일운동에 나서게 되였던것입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태양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조국통일운동의 선봉에 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앙양된 거족적인 조국통일기운으로 범민족대회가 조국땅에서 년례적으로 열리였을 때 어머니와 오빠와 저를 대표로 참가하도록 해주신분도 주석님이시였고 우리 가족을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통일의 길에서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기뻐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고무해주시며 은정어린 선물을 가슴한가득 안겨주신분도 주석님이시였습니다.

1994년 4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우리 가족을 만나주시였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당시의 금수산의사당에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였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최근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와 로씨야의 친선단체들이 련합하여 기념행사를 많이 조직진행하고있는데 자신께서는 그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사업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어머니가 그이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버이주석님,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직 적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저는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겠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어머니의 결의를 지지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정일심동무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일심동무가 나이가 많은것만큼 자식들에 대한 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석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실적마다 안동수유가족이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군 하시였습니다.

언제인가는 제2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방문한 어머니를 친히 만나주시고 정일심동무가 쏘련의 그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선통일촉진위원회(당시)의 고문으로 사업하고있고 거기에 아들딸 온 가족을 망라시켜 일하도록 한것은 잘한 일이라고, 동무는 혁명가의 안해이기때문에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그리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또 언제인가는 우리에게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며 조국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애국의 의지가 빛발치는 이 말씀들을 받아안을 때마다 우리 주석님처럼 조국통일을 필생의 숙원으로 절절히 바라신분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8.15해방후 외세에 의해 조선이 북과 남으로 분렬된 첫날부터 주석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된 통일조선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여 조선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도 심신을 깡그리 다 바치신 어버이주석님은 민족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절세의 애국자, 통일의 태양이시였습니다.

우리 안동수가족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때로부터 6년세월 어머니를 무려 9차례, 저를 3차례나 만나주시며 언제나 조선의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일깨워주고 힘과 고무를 주시던 그분의 인자하신 영상을 정녕 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주석님의 유훈과 그이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조선의 통일을 위해 더욱 분발해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백두산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비록 몸은 늙었지만 조선통일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그 공로로 하여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되였습니다. 오빠 안향산도 모스크바에서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지켜 일하였습니다.

1992년에 모스크바고통련 부위원장으로 된 저는 그후 모스크바고통련 서기장으로, 로씨야고통련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동포들속에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고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 10여년전부터 국제고통련기관지 불레찐 《통일》의 주필로 사업하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그분들이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에 기초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사상에 대하여, 조선의 민속전통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해외에서 조선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고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며 주석님생존시와 다름없이 돌봐주시였습니다.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따사로운 손길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전사한지 50돐, 60돐이 되는 날에는 몸소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며 국가행사를 크게 하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생일 90돐에는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까지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주석님생전의 사랑그대로 해마다 생활보조금도 어머니앞으로 꼭꼭 보내주시고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집을 완전히 새로 꾸려주고 가정용품도 일식으로 갖추어주도록 하신 장군님이십니다.

2002년 6월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로 천금같이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조국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어머니를 몸소 만나주시였습니다.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때 어머니는 꼭 주석님을 뵙는것만 같아 그이품에 안겨 눈물만 흘리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안동수와 우리 유가족에게 돌려주신 극진한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주석님이 그리울 때마다 조국에 자주 오라고, 조국은 안동수동지를 잊지 않을것이라고 은정깊은 말씀을 해주시였다고 합니다. 영광의 그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앞으로도 주석님의 유훈을 지켜 자식들을 잘 이끌어주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다고 어머니는 두고두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가족에게만도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만을 가득 안겨주신 장군님께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으시고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을 위해 불같이 헌신하시다가 그렇게도 일찌기 야전렬차에서 서거하시였으니 이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길 없습니다.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접하고 한달음에 조선으로 달려온 저와 어머니는 그이의 령전앞에 어푸러져서 울음을 터뜨리며 어버이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장군님, 깨여나십시오.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던 안동수가족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10여년전 주석님을 잃고 몸부림치던 금수산태양궁전의 그 울음홀에서 또다시 장군님 일어나시라고 조국인민들이, 해외동포들이 목이 터지도록 애타게 부르게 될줄 어이 꿈엔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록 그처럼 바라시던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시였지만 그분들의 통일애국위업은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태양을 모시여 굳건히 이어지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습니다.

그 환하신 모습에서나, 지니신 풍모와 특출한 령도적자질에 있어서나 주석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온 세계가 이제 조선이 어느 길로 가겠는가를 주시해보던 2012년 첫 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아주신 사변적인 소식을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전해들으면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난 수개월간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포연서린 야전외투를 입으시고 서해안의 초도방어대를 비롯하여 최전방의 인민군부대들을 련이어 시찰하시면서 조국을 철벽으로 지켜주시고 새 전쟁도발을 꾀하는 적들의 기를 꺾어놓으시였습니다.

지난 3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뜻밖에도 판문점을 찾아주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재로동포들은 처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판문점에 가보았기때문에 잘 압니다. 가느다란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군대가 총부리를 마주하고있는 최전연중의 최전방이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최고령도자께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그처럼 정세가 첨예한 때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판문점에 나가시고 지어 대낮에 적들이 지척에서 바라보는 판문각로대에까지 나가시여 쌍안경으로 적정을 료해하시였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고 격정에 마음젖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담력도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던 김일성주석님의 담력이고 예지와 령군술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던 김정일장군님의 예지, 령군술입니다.

력사의 땅 판문점을 시찰하신 그날 주석님의 통일친필비앞에 서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백두산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였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저는 삼천리에 비쳐드는 통일의 서광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의 태양은 영원히 밝은 빛을 뿌리며 대를 이어 우리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 절대적인 신뢰에 의해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사령관동지께서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옵는 최대의 행운을 지니였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저력이 있고 여유작작하면서도 자신만만한 그이의 음성은 어쩌면 해방후 주석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시던 그 음성과 꼭같은지 김일성주석님께서 환생하시여 광장주석단에 서계시는것만 같아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구호로 끝을 맺은 그이의 격동적인 연설은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 1000년의 앞길을 밝혀주고 조국의 강성과 번영에로 전체 조선민족을 고무추동하는 애국의 힘찬 부름이였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가 흠모하고 칭송하는 백두의 태양을 대를 이어 모시여 조선은 영원히 해솟는 나라로 빛나고 삼천리에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입니다.

(필자는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 국제고통련기관지 불레찐 《통일》의 책임주필임)

하늘에 대고 감히 삿대질을 하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온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사스러운 태양절 100돐을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속에 성대히 경축하였다.

뜻깊은 태양절 100돐행사는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향해 힘차게 진군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결심을 만방에 시위한 대정치축제였다.

경애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와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이번 축제분위기는 하늘끝에 닿았고 세계는 명인중의 명인이 동방조선에서 출현하였다고 선망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였다.

남녘인민들도 비범특출한 《청년령수의 출현》을 우러러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환생》으로 민족적긍지와 자랑이 넘친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었다.

지금 이 시각도 이 땅에서 시작되여 세계만방으로 퍼져나가고있는 류례없는 환희의 격파는 전인류사적인 《김정은숭배》, 《김정은신뢰》의 후더운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유독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들만은 동족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는 극단의 도발광기를 부리며 천하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있다.

그 무슨 《대한민국어버이련합》소속의 늙다리반동들과 꼭대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깡패대학생무리들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무지막지한 망나니짓을 벌려놓게 만들고있는것이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지금 리명박역적패당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형상한 모형들을 만들고 거기에 총질까지 해대는 란동을 부리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다.

태양절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의 성대한 열병식이 끝난 직후부터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모습까지 날조하여 나름대로 광고하면서 무엄하게 놀아대고있다.

동족대결에 광분해도 정도가 있고 무지막지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련속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쑤 리명박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리기 위한 전군, 전민의 거족적인 성전을 이미 선포한대로 쉬임없이 강도높게 벌려나갈 의지를 내외에 다시금 엄숙히 천명한다.

경사스러운 태양절경축열병식장에 과시된 열병대오의 름름한 기개와 한계를 모르는 위력한 타격수단들의 철의 행진은 그대로 역적패당의 아성을 짓뭉개버리는 우리 식의 타격전으로 이어질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우리 민족이 당한 대국상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역죄와 그 이후 피뢰군부대들에서 나타난 우리의 최고존엄모독행위와 관련하여 알아들으리만큼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자비한 보복행동을 예고하는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더이상 누를수 없고 참을수 없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차있는 분노이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특대형도발행위에 이골이 난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도발원점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는것이다.

최고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으로 다져진 총대는 특대형도발자들에 대하여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복수의 세례를 안기게 될것이다.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있는이상 그 모든것을 통채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것이다.

역적패당은 지금까지 저지른 만고대역죄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심판이 어떤것인가를 뼈저리게 감수하게 될것이다.

개무리가 아무리 짖어대며 날친다해도 맑은 하늘의 눈부신 태양은 건드릴수 없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한편으로는 강성부흥의 력사적인 진군을 다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줌도 못되는 역적의 개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성전을 동시에 벌려나가게 될것이다.

내 나라의 신성한 하늘에 감히 삿대질을 하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천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체101(2012)년 4월 18일
평 양

괴뢰역적패당은 천백배의 복수심에 불타는 우리 천만군민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성명

우리 민족과 인류는 태양조선의 영원한 4월과 더불어 절세의 위인찬가가 온 누리를 진감하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세기의 대축전으로 가장 경사스럽게 경축하였다.

온 겨레와 전세계의 커다란 환희와 격동속에 거행된 태양절 100돐대축전은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많던 이 나라에 민족재생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삶과 행복이 꽃펴나는 력사의 새 기원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 슬기를 세계만방에 떨치게 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체 조선민족과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분출이며 민족의 은인, 절세위인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감사의 표시이다.

그것은 특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선군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뜻을 이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통일된 강성대국과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아올 태양조선의 찬란한 미래와 불패의 혼연일체를 온 세상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다.

실로 이번 태양절 100돐 경축행사처럼 온 겨레를 흥분과 감격으로 끓어번지게 하고 세계의 이목을 조선에 집중시킨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러나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경사를 축하는 해주지 못할망정 그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온갖 허튼 수작질을 해대는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질렀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우리의 태양절행사가 거행되는 때 제놈이 직접 나서서 북이 장거리미싸일발사에만도 돈을 얼마 썼을것이고 그 돈이면 강냉이 얼마를 사올수 있었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꿰쳐댔는가 하면 극우보수언론들은 때를 만난듯이 그 무슨 《잔치비용》이요 뭐요 하면서 북이 태양절경축행사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느니, 그 돈이면 식량을 몇년분 해결할수 있었을것이라는 등으로 악담하였다.

이것은 우리 수령, 우리 체제,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극악한 중대도발로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웃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것처럼 욕된짓은 없다고 하였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나라 사람들까지 우리 민족의 대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유독 괴뢰패당만이 심사가 잔뜩 뒤틀려 행사비용까지 날조하여 모략소동을 벌리는것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속통이 고약하며 대결에 미쳐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모략소동은 우리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며 태양절경축행사의 거대한 파문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우리의 이번 성대한 태양절경축행사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잠재력의 일대 과시이다.

리명박패당이 그것을 알기나 하고 그따위 어리석은 망발을 꿰치는가 하는것이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태양절행사를 금전으로 마구 저울질하면서 모략소동을 벌리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깨끗하고 뜨거운 충정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가장 너절한 돈벌레인 역도패당은 백번 죽었다나도 천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정신세계와 존엄과 긍지를 다 알수 없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존엄을 지켜 준엄한 시련을 넘고 헤치며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킨 정신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은 그 무슨 비용이요 뭐요 하며 누구를 비방중상하기 전에 인민들의 혈세로 짜낸 막대한 돈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유지와 북침전쟁책동에 탕진하고 일신의 부귀영화와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남조선을 부익부, 빈익빈의 암흑세상으로, 자살왕국으로 만들어 민심의 심판대상이 된 제 처지나 돌이켜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대국상과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모독한데 이어 태양절행사까지 무엄하게 헐뜯고있는것은 우리 체제를 모해하고 일심단결을 해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줄따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최고존엄과 수령과의 혼연일체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가장 고귀한 뜻과 정으로 뭉쳐지고 날로 더욱 강해지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그 무슨 자금따위로 재보며 허물어보려는것은 실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괴뢰패당은 우리 수령, 우리 체제, 우리 인민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도전해나섬으로써 우리 민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는 대범하고도 적극적인 립장을 밝히신데 대해 무엄하게도 불순한 모략소동으로 대답해나선것은 동족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려는 흉심을 더욱 내보인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인내심은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역적패당이 다시는 이 세상에 살아숨쉬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동을 부리지 못하게 철저히 짓뭉개버릴 멸적의 의지가 더욱 거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역적패당의 모략광란을 더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천만군민이 틀어쥔 총대에는 복수의 총포탄이 만장탄되여있으며 백두산총대는 극악한 매국역적들을 똑바로 겨누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은 우리의 태양절행사를 중상모독한 중대범죄에 대해 당장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천만군민은 활화산같은 분노를 총폭발시켜 복수의 성전에 떨쳐나설것이며 이 땅에서 괴뢰역적패당을 영영 쓸어버릴것이다.

리명박역도와 한짝이 되여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헛나발을 불어대는 보수언론사와 악질언론인들도 추악한 반민족범죄자로서 절대 례외로 되지 않는다.

괴뢰패당은 천백배의 복수심에 불타는 우리 천만군민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101(2012)년 4월 19일
평 양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가 축하의 꽃물결을 이루며 경축과 환호의 기쁨에 설레이고있는 때에 이를 못마땅히 여기며 동족대결에 이를 가는 무지스러운 불한당들이 있어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16일 남조선의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 인터네트, 라지오연설이라는데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장거리미싸일발사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한다느니, 《핵과 미싸일개발은 주민식량을 빼앗는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악담을 꿰쳤다. 지어 역도는 다 낡아빠진 《개혁, 개방, 변화》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까지 문제삼으며 공화국의 체제와 정치를 악랄히 헐뜯었다. 역도가 지금까지 수십차례나 되는 방송연설놀음을 벌렸지만 이번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화국을 걸고들며 악담을 퍼부은것은 처음이다.

한편 리명박역도는 《대한민국어버이련합》과 같은 다 산 송장들과 아직 세상물정도 모르는 철부지 어용보수청년단체 성원들을 내세워 서울에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광란극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극우보수언론들을 총동원하여 태양절경축행사를 시비중상하는 모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려놓았다.

민족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등 제가 지은 만고대죄에 격분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들의 분노와 서리발같은 멸적의 기상에 기가 죽어 찍소리 못내던 리명박역도가 게거품을 물고 이번에 악담을 꿰쳐대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보수언론들과 극우패거리들이 일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은 태양절 100돐을 계기로 과시된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진막강한 군력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세계는 온 우주를 타고 날으는 전파와 TV를 통하여 조선민족의 불패의 위력에 놀라움과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더우기 이번의 열병식장에서 울려퍼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력사적인 첫 연설은 조선반도를 넘어 온 세계를 진감하며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리명박역도의 이번 망동은 위대한 계승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에 대한 전세계의 폭풍같은 환호를 막아보려는 필사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번에 리명박역도가 앞장에서 불순한 악담을 꿰친것은 극악한 동족대결, 반통일분자로서의 본색을 더욱 드러낸것으로서 풍지박산난 대결정책을 유지하고 숨져가는 비루한 목숨을 건져보려는 가소로운 추태이다.

리명박역도가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비핵, 개방, 변화》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것은 그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공화국의 존엄높은 최고존엄과 체제를 마구 건드린 리명박역도의 악담은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또 하나의 특대형비상도발사건으로서 지금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 땅, 이 하늘아래 살고있는 우리 겨레와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도발적모략소동은 리명박역적무리들이야말로 인간세상에서 더이상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들이라는것을 여실히 실감해주고있다.

이런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가 재앙과 화를 면할수 없다.

쑥대우에 올라선 민충이마냥 리명박역적무리들이 무분별한 대결광란을 벌리고있지만 그로 하여 차례질것은 이번의 열병식광장에서 울려퍼진 무서운 뢰성의 불벼락뿐이다.

그가 누구이든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자들은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줄것이다.

김 응 철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인 리명박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패거리들이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또다시 악의에 차서 헐뜯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니 이것이 과연 인간의 탈을 쓰고 할수 있는 망동인가.

온 세계의 관심속에 태양조선의 100년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며 무궁번영할 통일조국의 창창한 래일과 자주화된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는 세기적인 대축전이 거행되는 때에 입에 게거품을 물고 이를 깎아내리면서 일대 모략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얼을 꿰버린 천하악당, 인간세상에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가장 추악한 야만들이다.

미국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사대와 매국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고있는 식민지노예의 가련한 처지에 감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시비중상하고 개혁, 개방이니, 변화니 하고 짖어댄 리명박이의 망발이야말로 그가 초보적인 리성적판단능력조차 없는 얼간망둥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역적패당이 극우익늙다리들과 어용보수청년단체들을 내몰아 서울의 한복판에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나니짓을 하도록 조종하였는가 하면 《동아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매문지들을 총동원하여 존엄높은 영상모습까지 날조하는 악선전까지 벌리였다니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에서 계속 감행된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모독행위에 대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미 알아들으리만큼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자비한 보복행동을 예고하는 립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제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다.

지금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특대형도발행위에 이골이 난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을 지구상 한끝에라도 따라가 기어이 숨통을 끊어버리고 도발원점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투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이미 선포한대로 이번 태양절경축열병식장에서 과시된 조선인민군의 필승의 기개와 한계가 없는 위력한 타격수단들의 철의 행진이 그대로 역적패당의 아성을 짓뭉개버리는 정의의 타격전으로 이어질것이다.

우리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안의 전체 일군들도 온 겨레와 함께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리는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 반통일분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기어이 심판하고야말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윤 정 호

미일반동들과 그 주구패당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우리의 위성은 더욱 힘차게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조 선 우 주 공 간 기 술 위 원 회 대 변 인 담 화

우리 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광명성-3》 호발사계획을 선포한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세계는 우리의 위성발사문제로 쉬임없이 끓고있다.

진리에 공감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탄과 기대어린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불의에 젖어있고 심술로 체질화된 적대세력들은 당치않은 주장과 궤변으로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그 앞장에 미일반동들이 서있고 리명박특등주구가 요란하게 짖어대고 있다.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이 미일반동들의 강도적인 주장이며 특등주구의 쓸개빠진 떠벌임이다.

우리의 《광명성-3》 호가 《은하》 운반로케트로 발사된것으로 하여 위성이 아닌 장거리미싸일이며 따라서 그것이 미국본토와 일본렬도를 무섭게 위협하고 남조선도 불안하게 만들고있다는것이다.

나중에는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고 조미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행위》이며 저들에 대한 군사적《도발》로 된다는 억지주장까지 늘어놓고있다.

묻건대 지금까지 미국이나 기성의 위성발사국들이 자기의 위성을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발사한적이 있었으며 운반로케트로 쏘아올린 다른 나라의 위성은 위성이 아니라고 규정한 전례라도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과연 미국이나 일본의 위성은 입김으로 불어올렸거나 그 어떤 마술의 힘으로 떠올렸단 말인가.

우리는 애당초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기도의 산물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라는것을 인정한적이 없다. 더구나 거기에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2.29조미합의에도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더이상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어도 우리의 위성발사를 불허한다는 문구는 없다.

결국 불법무법의 결의라는것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악용하여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며 공정한 국제질서를 제멋대로 어기고 쌍방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미일반동들과 그에 무턱대고 추종하고있는 리명박특등주구패당들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요즘에는 국제기구로서의 공정성을 잃은지 오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의장성명이라는것을 또다시 발표하기 바쁘게 리명박특등주구패당들이 때를 만난것처럼 상전의 비위를 맞추어 정신없이 짖어대고있다.

비루먹은 늙은 개의 맥빠진 버둥질에 불과한 역도의 추태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우리의 이번 평화적위성발사과정을 전후하여 나타난 각이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랭정하게 지켜본데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립장을 밝히게 된다.

1. 민족의 우주과학과 기술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올려세우자고 하여도 리명박역도와 같은 특등주구들부터 한시바삐 제거해버려야 한다는것이다.

원래 리명박역도는 과학과 기술의 견지에서 지적지수가 2MB밖에 안되는 무지하고 몽매한 천치이며 초보적인 과학적사유기능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이다.

위성과 장거리탄도미싸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위성발사를 《군비경쟁》의 산물이라고 궤쳐대고 있는것 역시 그가 바로 정치와 군사의 가장 초보적인 문제도 헤아리지 못하는 저능아이기때문이다.

일본땅에서 자라면서 특유한 간교함과 장사군기질로 잔뼈를 굳혀왔고 상전에게 아부 잘하는 솜씨로 미일상전의 충견이 된 그가 인간의 고급한 사유능력을 가지고있을리 만무하다.

그래서 동족의 위성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상전의 요구를 서슴없이 받아물고 미친개처럼 무턱대고 짖어대고있는것이다.

가련한 제 처지도 모르고 입만 벌리면 《미싸일발사니 한사코 막아야 한다.》,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하면 국제적인 지원과 협조도 있다.》고 주제넘게 짖어대고있는것이 바로 리명박특등주구이다.

력대 청와대《주인들》치고 리명박역도처럼 《미숙한 대통령》, 《바보대통령》, 《무식한 대통령》은 일찌기 없었다.

남조선정계, 사회계가 리명박특등주구의 4년간 정치를 《실패한 정치》, 《고약한 정치》, 《돌아볼것이 없는 정치》라고 혹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계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리명박역도는 비록 때늦은감은 있지만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는것으로 민심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에 호응하여야 한다.

민족의 우주과학과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도 리명박역도와 같은 인간추물들부터 하루빨리 청산해버려야 한다는것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2. 우주과학과 기술을 궤도에 올려세우려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적대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죽은 사람과 다를바 없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목숨은 버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만은 버릴수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싸워온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위성발사는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주권행사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미국이나 기성의 위성발사국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만약 미일반동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지금과 같은 오만무례한 자주권침해행위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나중에는 뭇사람들의 먹고 쓰고 사는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리마저 빼앗으려 달려들게 될것이다.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굽신거리지 않으면 평화적위성도 발사할수 없게 만들자는것이 미일반동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지배주의적야심이다.

우리 민족은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 하였던 어제날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아니며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약소국은 더욱 아니다.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세계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운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이 바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다.

침략과 지배의 마수를 우주공간에까지 뻗쳐보려는 미일반동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는것으로 우주과학과 기술의 평등한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드팀없는 립장이다.

3.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일반동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선군의 길을 따라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해 더욱더 억세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광명성-3》 호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끝낸 상태에 있다.

이번 기회에 터득한 모든 과학기술적자료들과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의 우주개발에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더 큰 성공의 믿음직한 담보로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우주개발기구들을 최첨단의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리는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

지금 미국이 몇푼어치의 식량《지원》보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우주개발권리를 빼앗으려고 획책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지원》이 있고 그 누구의 《협조》가 있어 살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모든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미일상전의 특등주구인 리명박장사치들의 계산법이나 제국주의자들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것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위력이다.

미일반동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고 선포하신 명언의 심오한 의미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총돌진하는 주체조선의 장엄한 기상은 우주정복을 위한 투쟁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될것이다.

세계는 무한대의 우주공간으로 쉬임없이 날아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위성들을 보면서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의와 진리의 투쟁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미일반동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리명박쥐새끼패당이 아무리 쏠라닥대도 우리의 평화적위성은 우주공간으로 련속 힘차게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주체101(2012)년 4월 19일
평 양

우리 체제와 최고존엄을 또다시 심히 모독한 리명박 역적패당은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 국 평 화 통 일 위 원 회 성 명

만고역적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이 우리의 체제와 최고존엄을 심히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16일 리명박역도는 우리의 태양절경축행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때 인터네트, 라지오연설이라는데 출연하여 북의 핵과 미싸일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지어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까지 시비하면서 핵무기포기와 개혁, 개방,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주제넘은 망발을 궤쳐댔다.

한편 괴뢰역적패당은 극우보수언론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태양절경축행사를 중상모독하는 악선전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극우익늙다리들과 어용보수청년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내몰아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격표적으로 삼고 지어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에 불손한짓을 감행하는 등 극악무도한 광란극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천추에 용납못할 또 하나의 특대형비상도발사건이다.

이번 우리의 태양절경축행사는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의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최상의 긍지와 존엄을 떨치는 태양조선의 100년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며 무궁번영할 통일조국의 창창한 래일과 자주화된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는 세기적인 대축전이다.

하기에 온 겨레와 전세계는 우리의 성대한 태양절경축행사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우리의 대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유독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만이 동족의 대축전을 그토록 입에 게거품을 물고 깎아내리면서 일대 모략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그들이야말로 민족의 얼을 궤뚫리고 인간의 탈마저 벗어던진 천하악당, 인간세상에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가장 추악한 야만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모략광란은 태양절경축행사를 통하여 과시된 우리의 일심단결위력과 무진막강한 군력앞에 너무도 놀라 기절초풍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위대한 계승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에 대한 전세계의 폭풍같은 환호를 막아보려는 필사의 몸부림이다.

특히 리명박역도가 앞장에서 불순한 악담을 궤친것은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 반통일분자로서의 본색을 더욱 드러낸것으로서 풍지박산난 대결정책을 유지하고 림종의 운명에 처한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가소로운 추태이다.

돈밖에 모르는 너절한 시정배무리인 리명박패당이 우리의 이번 성대한 태양절경축행사에 대해서까지 돈으로 계산하여 경망스럽게 놀아대면서 온갖 험담과 비방중상에 미쳐날뛰고있지만 천만금으로도 계산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고 선군위력이다.

우리에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싸일보다 더 위력하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절세의 천출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무기가 있다는것을 괴뢰패당따위가 알기나 하는가.

바로 그것이 있기에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가 있는것이며 태양조선의 천만년사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는것이다.

우리에 대해 《변화》를 운운하는것은 잠꼬대와 같은 망상이며 변화를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것은 바로 괴뢰보수패당이다.

거듭되는 특대형도발적망동은 천하역적 리명박이 백번 죽었다나도 대결적본심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며 그러한 악독한자는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우리의 판단과 결심이 백번 옳았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리명박과 같은 횡포무도한 역적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이 재앙을 면할수 없다.

지금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에 닿아있으며 극악한 도발자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쓸어버릴 멸적의 투지에 불타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무분별한 대결광란으로 얻을것은 무서운 복수의 불벼락과 파멸밖에 없다.

리명박역적과 그 추악한 족속들은 이번 특대형도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며 그로 하여 가장 비참한 운명을 절대로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주체101(2012)년 4월 18일
평 양

정치저능아의 대결넋두리

얼마전 우리 민족과 온 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세기적인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4월의 대축전에는 공화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예술인들도 찾아와 우리 민족의 태양,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유독 자칭 한민족을 운운하던 남조선보수패당만이 태양절경축행사를 악랄하게 시비중상하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모독하는 천하망나니짓을 감행하였다.

그 앞장에는 여전히 만고역적 리명박이 서있었다.

16일 리명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족을 모해하고 물어메칠 흉심이 반영된 그 무슨 인터네트, 라지오연설이라는것을 하였다.

그 연설이라는데서 리명박은 북의 핵과 미싸일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었으며 《북이 살길은 개혁, 개방, 변화》라는 깨진 소리판같은 망발을 늘어놓았다.

지어 태양절경축행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등 너절한 수전노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면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어째보려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

민족적격분이 끓어오르게 하는 정치저능아, 대결광신자의 넉두리가 아닐수 없다.

집권말기 정치송장이 되여 찍소리 못하고있던 리명박이 지난 《총선》으로 보수세력이 일시 득세하게 되자 동족대결의 골목대장노릇을 하던 못된 버릇이 되살아난 모양이다.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물어메치려는 미친개마냥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리명박이 감히 세치 혀바닥으로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우롱하고 모독한데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존엄과 자주권은 공화국인민들의 생명이다.

패권과 전횡으로 불의를 일삼는 제국주의에 맞서 주체와 선군의 우리 식으로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지켜온 공화국인민이 정당했다는것은 이번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주체사상세계대회에서 울린 평양선언만으로도 명백한 대답이 된다.

군사《주권》, 경제《주권》 등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미국상전에게 섬긴 대가로 정치적목숨을 근근히 부지하는 식민지하수인인 리명박은 공화국인민들이 왜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존엄을 지켜왔고 굴욕의 안락보다 존엄을 선택하는지 죽어서도 깨닫지 못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민족사적, 인류사적의의를 가지는 태양절경축행사를 몇푼의 돈으로 저울질해보려고 무엄한 잡소리를 한것이고 핵무기보다 위력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칼질해보려고 가소롭게도 혀바닥장난을 한것이다.

돈으로는 부귀를 살수 있어도 존엄은 살수 없다.

돈만 있으면 모든것을 다 해결할수 있다는 황금만능밖에 모르는 리명박은 인간의 존엄, 민족의 자주권이 무엇인지 죽어서도 알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살든 저 하나의 안락을 위해 굴욕과 예속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리명박은 이미 민족성은 고사하고 인간성도 완전히 상실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하고 상복도 벗지 못한 동족의 가슴에 최고존엄모독으로 매운재를 뿌린 반인륜범죄자,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태양절대축전까지 헐뜯는 민족반역자, 인간쓰레기가 바로 리명박이다.

이런 천하불망나니가 망발을 궤치며 발악해도 공화국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식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민족의 대경사, 인류사적인 대축전을 모독한 리명박이 자기의 만고대죄에 대해 민족앞에 천백배로 사죄하지 않는다면 민족과 력사의 무자비한 징벌을 뼈저리게 맛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미 친 개 의 행 악 질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두려워 뻐꾹소리 한번 내지 못하던 리명박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숨통이나 열린듯이 굴속에서 기여나와 또다시 반공화국대결악담질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16일 인터네트, 라지오방송연설이라는데 출연한 리명박은 북의 핵과 미싸일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와 최고존엄을 또다시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지어 공화국을 오늘날 만사람이 경탄하는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킨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까지 시비해나서면서 핵무기포기와 개혁, 개방,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주제넘은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역적패당의 이번 망나니짓은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이 골수에 사무친 대결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한것이며 이제 더는 용서받을수 없는 만고대죄이다.

솔직히 리명박으로 말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의 본질도 모르면서 미국상전들과 극우보수분자들의 각본에 따라 입만 벙끗거려온 정치문외한이다. 거기다가 해인지 달인지도 모르고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싸일시험이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을 결고들었던 리명박이다.

이러한 그가 감히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의 온갖 악정으로 인해 《정권심판》에로 달아오른 민심을 《안보위기》로 잠재워 남은 임기를 무난히 채우고 보수《정권재창출》을 이루어보자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나머지 이제는 전쟁문어구에까지 와있다.

실지로 변해야 할것은 리명박의 반인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정책들이며 갈아버려야 할것은 리명박의 《실용정부》인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이 이번에 또다시 악담질을 해댄것은 말그대로 제명을 다 살기를 포기한 하루살이의 마지막침질에 불과하다.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얼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추악한 역적패당, 미친개무리를 민족의 이름으로 징벌하며 자기가 나아가는 정의의 길, 애국의 길, 승리의 길을 계속 끌까지 걸어나갈것이다.

드센 손바닥에 하루살이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듯이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속에 리명박역도가 비참한 운명에 처할 날도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최 명 제

◁ 미 친 개 ▷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들은 이 하늘아래 숨쉴 공간이 없다

죄악중의 가장 큰 죄악

남조선에서 동족을 심히 중상모독하는 반공화국대결광증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역적패당은 태양절 100돐을 계기로 늙다리송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어버이련합》파 멋없이 날뛰는 젊은 깡패대학생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중상하는 천하의 불망나니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민족의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또 하나의 특대형비상도발사건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번에 공화국은 온 민족과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100돐기 년륜을 아로새긴 이번의 태양절행사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정치축전으로서 우리 민족은 물론 공화국을 동경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지어 공화국의 적대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공동사진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린것은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국제사회계의 관심이 얼마나 열렬한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이 무엄하게 놀아댄것은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모르는 정치무능아, 천치바보가 아니고서는 전혀 생각할수 없는짓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의 이번 망동은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동족의 축전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권위와 최고존엄을 깎아내려보기 위한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리명박역적패당의 중상모독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조선의 륙해공군부대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기표적》사건, 남조선군병영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써붙이거나 내다건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현수막》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반역무리들이 또다시 감행한 특대형비상도발사건은 공화국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시켜 조선반도에 기어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한 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한 대결정책의 산물로서 동족과 끝까지 해보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실제로 얼마전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무력도발》을 운운하면서 평양을 《보복타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상응표적타격계획》을 작성함으로써 공화국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낱낱이 드러내였다.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수 없고 보상할수 없는것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행위이다.

하늘의 태양을 어째보려고 분수없이 미쳐날뛰는 리명박패당이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아직까지 살아숨쉬고있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공화국은 이미 특대형도발에 이골이 난 역적패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리명박패당은 저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특대형도발행위가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김철호

하늘에 시비를 거는 무엄한 망동

이 세상에는 남이 잘되는것을 그리도 배아파하고 동족을 모해중상, 헐뜯지 못해 기를 쓰는 천하에 둘도 없는 못된자들이 있다.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이 바로 그러한 불망종들이다.

얼마전 리명박역적패당은 공화국에서 성대히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중상하다 못해 수전노들이나 내뱉을 역겨운 수작질을 하며 악랄하게 헐뜯는 망동을 부리였다.

민족의 대국상과 최고존엄을 모독한데 이어 또다시 태양절경축행사를 금전으로 저울질하며 무엄하게 걸고든 리명박역적패당의 망동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사건이다.

이번에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상의 영예와 존엄을 떨친 태양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세상에 없는 일심단결, 선군의 위력으로 태양의 력사를 천세만세 빛내여나갈 선군조선의 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시위한 대정치축전이였다.

광범한 세계사회계는 이번 태양절경축행사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모해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날로 승승장구해가는 영웅조선의 위용과 기상을 다시금 똑똑히 보았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세계가 격찬해마지 않는 태양절경축행사를 비방해나선것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위용떨치는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했기때문이다.

리명박역적패당으로 말하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독재와 부정부패로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산송장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와 인민의 버림을 받은 이런자들이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앞에 질겁해 날친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 민족에게는 태양절경축행사를 시비중상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의 망발이 한갖 죽어가는자의 비명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돈밖에 모르는 너절한 시정배무리인 리명박역적패당이 태양절경축행사의 세계사적의의를 깎아내리고 공화국의 밝은 영상을 흐려보려고 악을 쓰는것이야말로 하늘에 시비를 거는것만치나 무엄하고 가소로운짓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아무리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일삼아도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위상을 털끝만큼도 허물수 없다.

그러한 망동은 도리여 시대와 인민의 타도의 표적이 된것으로 하여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저들의 궁색한 처지만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것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동족을 중상모해하는 쓸개빠진짓을 계속할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을 다 털어놓고 사죄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도발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고영수

그 입에서 그 소리밖에…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6일 인터네트, 라지오연설이라는데 출연한 리명박은 공화국의 핵과 미싸일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주제넘은 악담을 늘어놓았다.

까마귀 하루 백번 울어도 까욱소리뿐이라고 동족대결에 환장한 역도의 입에서 나올것이란 개소리밖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해주고있다.

온 세계의 경탄과 부러움속에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동족의 축전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을 꺼림없이 짖어대는 리명박의 이 망동은 그가 개보다도 못한 인간추물이라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역도야말로 지난 4년 남짓한 기간 한피줄을 나눈 동족에 대한 악담들을 늘어놓으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줄기차게 전진해온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격동적인 나날들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모독하였는가 하면 우리 민족끼리는 《편협한 민족주의》이고 《배타적민족주의》이며 《그것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고 망발한것이 바로 리명박이였다.

리명박역도가 《선핵포기》니, 《진정성》이니, 《원칙고수》니, 《북태도변화》니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북남대화와 북남관계를 가로막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공화국이 민족의 화합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리명박은 대화를 하면 《북의 권력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된다.》, 《대화를 안하는것이 대북정책을 살리는 길》이라고 궤쳐대다 못해 《원칙없는 회담을 하지 않겠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가장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있다고 본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망상에 불과한 《체제통일》, 《흡수통일》야망에 기대를 걸고 리명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개방》과 《변화》를 떠들었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것이 궁극적목표》, 《통일은 도적같이 한밤중에 올수 있다.》는 망발까지 궤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그가 남조선군부대들을 싸다니며 《불과 50㎞앞에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악담으로 전쟁열을 고취하다 못해 저들의 도발로 인해 산생된 연평도포격사건을 두고 《연평도포격때 북을 타격하지 못한것이 천추의 한이다. 울화통이 터져 정말 힘들었다. 참을수 없다.》는 극악한 망발을 내뱉은것을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모든것을 돈으로밖에 계산할줄 모르는 리명박은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동족을 유혹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는가 하면 이번 연설이라는데서 미싸일 한번 쏘는 돈이면 강냉이 얼마를 살수 있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작으로 더러운 수전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렝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천하에 못된 말만 골라서 하는 이런 인간추물이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것자체가 민족의 망신이고 수치이다.

말을 한번 내뱉기전에 입에서 열번 굴리라는 말이 있다.

리명박은 동족대결광기와 무지로 가득찬 자기의 말 한마디가 민족의 운명에 어떤 후과를 미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전철호

가장 너절한 야만의 무리

만고역적 리명박과 그 패당이 또다시 감행한 반공화국특대형도발행위들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역도는 지난 16일 그 무슨 인터네트, 라지오연설이라는데 출연하여 북의 핵과 미싸일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지어 《핵무기포기와 개혁, 개방, 변화만이 살길》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극우보수언론들을 내몰아 민족최대의 태양절경축행사에 대한 악선전에 열을 올리였다.

민족의 대국상기간에 저지른 만고대죄만으로도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란 없는 리명박역적무리들이 이번에 또다시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행한 극악무도한 광란극은 천추만대를 두고 영원히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와 전세계가 태양절 100돐을 가장 성대하고 뜻깊은 인류경사의 날로 기념하고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고있는 때에 리명박역도가 앞장에서 불순한 악담을 쥐친것은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 반통일분자로서의 본색을 더욱 드러낸것으로서 풍지박산난 대결정책을 유지하고 림종의 운명에 처한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가소로운 추태이다.

이번에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는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의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최상의 긍지와 존엄을 떨치는 태양조선의 100년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며 무궁번영할 통일조국의 창창한 래일과 자주화된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는 세기적인 대축전이였다.

위대한 계승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에 대한 전세계의 폭풍같은 환호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위력, 무진막강한 군력앞에 너무도 놀라 기절초풍한것은 다름아닌 리명박보수패당인것이다.

돈밖에 모르는 너절한 시정배무리들인 그들이 온갖 험담과 비방중상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불패의 존엄과 위상을 헐뜯으려고 미쳐날뛰지만 그것은 잠꼬대와 같은 망상이며 림종에 처한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

천하역적 리명박보수패당의 거듭되는 특대형도발적망동은 백번 죽었다 나도 버릴수 없는 미친개의 본성으로서 단호히 징벌해야 마땅하다는것이 우리 민족이 찾은 판단이고 결심이다.

무분별한 동족대결광란을 일삼고있는 가장 너절한 야만의 무리들인 리명박역적패당이 살아숨쉴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그동안 쌓이고쌓인 민족분렬의 한을 총폭발시켜 리명박역적과 그 하수인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영영 매장해버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반역《정권》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5)

《실용정권》타도는 빠를수록 좋다

뿐만아니라 외세에 아부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없이 팔아먹고 선행군부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실용》파쇼체제를 구축하여 남조선을 민주, 민권의 페허지대로 만들었다.

사기와 협잡을 일삼고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을 위한 반인민적정책으로 최악의 경제위기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불평등심화, 인민생활파탄을 초래한것도 현 보수당국이며 부정부패를 일삼아 향락을 누리고 사회를 못쓰게 만든것도 바로 보수패당이다. 실로 역적패당의 죄악을 꼽자면 끝이 없다.

하여 리명박역적패당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물론 보수세력들한테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탈당까지 강요당하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집권기간 정치적무지와 추악한 사대매국적근성, 도덕적저렬성으로 하여 이미 시대의 버림을 받고 산송장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이쯤되면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스스로 자폭해야겠으나 보수패당은 극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서 살길을 찾아보려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반역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해대는 반인륜적망동을 부리다 못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력대 대결분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민족의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천하망탕짓도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또한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복지지원》 등 달콤한 말로 민심을 회유하는 한편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세력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지난 16일에도 리명박역도는 무슨 인터네트, 라지오연설이라는데 출연하여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다 못해 극우보수언론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태양절경축행사를 중상모독하고 민족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드리는 특대형도발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의 마지막나날을 보내고있는 리성잃은 정신병자의 발광에 지나지 않는다.

미친개를 집안에 두면 화를 당하는것처럼 리명박패당과 같은 천하 무지막지한 쥐새끼무리들을 계속 그대로 놔둔다면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가 언제가도 편안할수 없다.

재앙의 화근인 리명박역적패당과 최후결산을 할 때는 왔다. 보수패당을 타도하는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본사기자 주광일 (끝)

리명박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당국의 언론탄압행위를 단죄

9일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가 대표 리창기의 옥중글을 실었다.

글은 최근 청와대의 불법사찰행위가 폭로됨으로써 당국의 언론장악책동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언론인들을 감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썼다.

이것이 언론을 청와대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것이라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최근 언론사로조들이 일제히 장기적인 파업에 떨쳐나선것은 당국의 언론탄압에 대한 항거라고 주장하였다.

량심과 신념에 따라 글을 쓰려는 언론인들에 대해 탄압의 칼만 휘두르는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민주도 정의도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비렬한 모해책동에 항의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4일 단체에 대한 당국의 비렬한 음모책동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새누리당》패거리가 전교조 이전 위원장의 《국회》의원후보 출마문제를 두고 야단을 치며 헐뜯은데 대해 비난하였다.

이것은 저들이 내놓은 1%만을 위한 특권교육정책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한데로부터 한짓이라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여당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운동과 관련하여 이전 위원장을 기소한것자체가 현 당국의 반민중적교육정책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전교조출신에 대한 모해책동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는 무지막지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새누리당》이 전교조에 대한 비방중상을 걷어치우며 지난 4년간 부당한 교육정책으로 매일 10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게 한것과 교육을 파탄시킨 죄악에 대해 반성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파쇼당국의 무차별적 폭거를 규탄

남조선의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항의운동가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파쇼당국을 규탄하여 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 문정현신부가 제주해군기지공사장 주변에서 항의투쟁을 벌리던 도중 해양경찰의 탄압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데 대해 밝혔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폭압행위가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공안세력이 공사강행을 위해 주변을 봉쇄하고 항의운동가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평화적인 항의운동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당국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선물하여주신 인민극장에서 개관공연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태양절 100돐을 맞는 우리 인민에게 선물하여주신 인민극장에서 17일 은하수관현악단의 개관공연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대표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서곡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남성2중창과 합창 《한별을 지켜가리라》, 혼성3중창과 남성합창 《기쁨 싣고 달리는 말발구》,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나는 알았네》, 혼성4중창과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관현악 《강선의 노을》, 녀성5중창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설화와 녀성3중창 《잊을수 없는 봄》, 《타향의 봄날에》, 녀성독창 《당의 기치따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4중창 《우리는 행복해요》, 2중창 《만경봉의 무지개》, 피아노와 노래 《아버지원수님께 영광드려요》, 중창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가 펼쳐져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정신력, 조선혁명의 추진력인 동지애로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지시고 이 땅우에 강성번영의 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고속에 인민의 만복이 꽃펴났음을 보여주는 녀성독창과 방창 《인민사랑의 노래》, 녀성독창 《수령님 사랑 안고 오셨네》, 민족기악2중주와 녀성독창 《비단짜는 처녀》, 《녕변의 비단처녀》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자주적근위병들의 신념의 웨침인양 합창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해안포병의 노래》, 트럼베트3중주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절세위인들께서 평생토록 품안고 사랑과 정을 다해주신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혈육, 만경대혈육이며 내 나라는 만경대고향집에 뿌리를 둔 인민의 나라 조선이라고 격조높이 구가한 설화와 관현악 《수령님과 혈육》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으시고 천만시련을 헤치시며 사회주의락원을 꽃피우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태양의 미소를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충직한 동지, 전우가 되여 우리 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빛내여갈 맹세가 어린 녀성3중창과 합창 《영원한 그 미소》, 합창 《나가자 조선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공연의 절정을 이루었다.

본사기자

4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위인칭송의 노래

영원히 울려가라 태양의 노래여

재일조선인예술단에서

《푸른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을 보아도 거리에 피여나는 봄꽃을 보아도 수령님 생각 사무쳐오르는 태양절입니다. 오늘도 금시 환하게 웃으시며 총련동포들이 보고싶었다고 따뜻이 반겨맞아주시던 못 잊을 그날처럼 수령님 우리 노래를 들어주실것만 같아 가슴울렁이는 저희들입니다. …》

자나깨나 그리운 수령님 생각으로 가슴 불태워온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은 민족사에 가장 경사스러운 100번째 태양의 봄명절을 맞이한 경축의 기쁨을 노래와 춤에 담아 4월의 봄축전무대에 올렸다.

공연의 막을 올린 혼성중창 《수령님노래는 영원합니다》에서 출연자들은 겨레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려는 재일동포들의 순결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공연무대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은 예술인들의 설화와 노래 《잊을수 없는 영광의 그날》, 남성독창 《그날밤의 축배잔》들도 올랐다. 무대화면에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을 만나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영상이 모셔지자 관람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북받치는 그리움을 안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장새납2중주 《강성부흥아리랑》과 가야금독주와 고음저대2중주 《돌파하라 최첨단을》은 관중들로 하여금 희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공화국이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고 있는 자랑과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였다.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은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이 있어 찬바람부는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넋과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간다는것을 보여주는 종목들인 쌍무 《박편무》, 민요련곡인 녀성독창 《모란봉》, 혼성3중창 《까투리타령》을 민족적흥취가 나게 잘 형상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은 녀성독창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타악기를 위한 기악과 노래 《민족의 제일행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하늘처럼 믿고살던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슬픔을 안고 하염없이 내리는 흰눈우에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던 재일동포들이였다. 산천초목도 위인을 잃은 슬픔에 목놓아울던 지난해 12월말 재일동포들은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절세위인들의 유훈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세워주시는 또 한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보았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시며 태양조선을 강성부흥의 찬란한 미래에로 이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신것은 민족의 제일가는 행운이다.

재일동포들은 대를 이어 태양복을 누리는 조선민족의 최대의 행운을 경쾌한 장고재주를 동반한 합동연주를 통해 박력있게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노래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애국애족의 위업을 받드시여 찬눈길, 험한 령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받들어모시는 길에서 훈훈한 봄바람이 되고 한송이 꽃이 되는것이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이라는것을 절절하게 보여주어 관중들의 눈시울을 적시였다.

공화국의 강성번영할 래일을 위하여, 총련의 창창한 앞날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통일애국의 령도를 애국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총련동포들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는 혼성중창 《발걸음》, 《총련의 창창한 미래를 향하여》에 힘있게 반영되여 평양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본사기자 박금일

혼성중창 《수령님노래는 영원합니다》

수령님 그리는 마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열린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인들은 태양칭송의 춤과 노래를 안고 달려왔다.

무용 《수령님을 그리며》로 막을 올린 이들의 공연은 시작부터 관중들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이역의 하늘가밑에서도 언제나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통일애국의 길을 끗끗이 걸어가는 해외동포들의 모습을 반영한 무용 《수령님을 그리며》는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특히 남별가수는 《우리 예술단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해외동포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신념의 맹세를 안고 축전무대로 달려왔다.》고 하면서 노래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을 불렀다.

3천만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김일성장군님을 노래합니다
백두의 밀림에서 높이 솟은 태양
3천리 조국강산 비쳐줍니다
찬란하다 그 이름 김일성장군
3천만은 노래합니다 우리의 태양
…

서정적으로 무게있게 울리는 노래속에 태양민족의 일원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애국충정의 대를 끗끗이 이어갈 해외동포들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태양만을 따를 굳은 신념을 안고 부른 이들의 노래는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사기자 박원평

무용 《수령님을 그리며》

그리움의 노래, 맹세의 노래

— 재미조선인예술단에서 —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한 공연들가운데는 재미조선인예술단의 공연도 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된 재미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을 보며 관람자들은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사는 재미동포들의 절절한 마음을 잘 알수 있었다.

녀성독창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의 은은한 노래선률이 울리자 관람자들은 깊은 정서속에 잠기였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빛이 흐르네
못 잊을 추억을 안고 내 마음 설레네
끝없이 걷고싶어라 내 사랑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들으면 들을수록 몸은 비록 대양건너 멀리 있어도 고국의 인민들과 평양의 거리를 함께 거닐며 그들과 숨결을 같이 하고싶어하는 동포들의 정서와 랑만이 심장에 와닿는 노래여서 관람자들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후더워졌다.

무대에는 리준무선생이 지휘하는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도 올랐다.

우륵교향악단 지휘자이며 단장인 리준무선생은 미국땅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지휘한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진 재능있는 음악가이다.

특히 공화국인민들속에 민족의 참다운 음악을 위해 투신하는 지성인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기 위해 기여하는 지휘자로 사랑을 받고있는 그가 무대에 출연하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리준무선생이 지휘하는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의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을 세우시기 위해 선군령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애국충정으로 받들어갈 재미동포들의 결의를 격조높이 구가하며 평양의 하늘가로 울려퍼졌다.

재미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은 만민이 우러르고 칭송하는 민족의 어버이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노래,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지켜나갈 맹세의 노래인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녀성독창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 바이올린독주

태양복 누려가는 긍지를 안고

* 재중조선인예술단에서 *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우러러 터친 위인칭송의 노래가운데는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이 부른 태양찬가도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성대히 열린 이번 축전무대에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은 태양복을 누려가는 해외동포들의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는 종목들을 무대에 올리였다.

출연자들은 종목들을 통하여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돌이켜보면 겨레의 운명개척에서 탁월한 위인을 모시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 사무치게 절감해온 해외동포들이였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타향살이 설음속에 죽지못해 살아온 해외동포들, 설한풍 스산한 원한의 피바다에 묻힌 참혹한 주검은 그 얼마였던가.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린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와 계몽기가요 《타향살이》들은 그대로 어제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여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의 축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지 않으셨더라면 해외동포들이 누려가는 오늘의 높은 존엄과 행복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하기에 그들은 남성독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에서 태양복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심장으로 터치였다.

백두의 밀림에서 밝아온 이 아침
우리는 수령의 노래 자랑으로 부르네
이 노래 억눌렸던자 용사로 키워
언제나 승리에로 고무해주네
이 노래 원쑤에겐 죽음을 주고
승리한 조국땅에 울려퍼지네
아 언제나 친근한 우리 수령 김일성원수
우리들은 심장으로 높이 부르네
…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의 최고존엄이시고 해외동포들의 억센 마음의 기둥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해외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 살아도 《나는 조선사람이다.》고 소리높이 웨치며 가슴펴고 살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주체의 태양과 함께 희세의 선군태양을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는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니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은 선군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하기에 김경자가수는 노래 《그 품 떠나 못살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면 이 가슴 한없이 젖어들고 우리를 손잡아 키워주신 그 사랑 잊을수 없다고,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못산다고 목청껏 노래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로 달려가는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최경호가수도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눈물을 머금으며 절절하게 불렀다. 노래를 들으며 관중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이의 유훈을 지켜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공연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무용 《백두의 발걸음》에 출연한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민족의 대경사를 박력있는 춤률동과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공연마감을 훌륭히 장식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설화와 합창 《우리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주 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